그 많던 공포영화는 다 어디로 갔을까?

올여름 '고死-' 유일…관객 반응 냉담 제작 줄어

태국·스페인 공포물, 할리우드産 틈새 공략

해마다 여름이면 극장가를 주름잡던 한국 공포영화들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의 경우 '전설의 고향', '해부학 교실', '므이', '기담' 등 10여편의 작품이 쏟아졌지만 올해는 이범수 주연의 '고死-피의 중간고사' 정도만 눈에 띌 뿐이다.

광주에서 제작발표회를 갖고 크랭크인한 고은아·채민서 주연의 '외톨이'는 촬영 일정이 늦춰지면서 정작 여름 개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해 여름이면 '아파트', '분신사바', '폰', '가위' 등 공포영화를 발표했던 '한국 공포물의 자존심' 안병기 감독 역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작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공포 영화 제작이 뚝 그친 것은 지난해 공포영화가 받아든 성적표가 낙제점이 가까웠기 때문. 지난해 개봉작들은 대부분 관객동원에 실패했고 평단의 반응도 썰렁했다. 관객 동원에 성공한 작품은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 정도였고 부산영평상, 디렉터스 컷 등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감독상을 휩쓴 정가형제가 만든 '기담' 은 평론가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관객 동원에서는 쓴잔을 마셔야했다.

관객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충무로의 제작 여건도 여의치 않다보니 가장 먼저 된서리를 맞고 있는 장르가 바로 공포물이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공포물이 여름 한철 장사를 위해 졸속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충무로 데뷔를 노리는 젊은 감독들이 일정한 '공식'을 적용해 가장 편하게 데뷔할 수 있는 장르라는 인식으로 제작, 결국 제발 등을 찍고 말았다. 탄탄한 스토리 대신 전혀 무섭지 않는 뻔한 줄거리에 예측 가능한 촬영 등으로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올해 국내 공포물이 주춤하는 사이 태국· 스페인 등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건너온 공포물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할리우드산 공포물도 개봉 대기중이다.

오는 8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고死 : 피의 중간고사'(이하 고사)는 올 여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공포영화다. 수능을 200일 앞두고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모범생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중인 한 교실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고死'는 주어진 시간에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한 사람씩 목숨을 잃게되는 죽음의 시험이 주 소재다.

최근 드라마 '온에어'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준 이범수가 교내 최고 인기 선생님 창욱 역을 맡았으며 그룹 '씨야'의 김규리가 의리파 여고생이나 역을 맡아 스크린 데뷔식을 치른다. 또 '하늘이시여'의 윤정희가 신입 영어선생 소영 역으로 출연하며 '거침 없이 하이킥'의 김범은 교내 킹카이자 반항아인 강헌역을 맡았다.

8월 14일 개봉예정인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은 뉴욕 지하철을 배경으로 살인마와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공포물이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시체를 배달하는 연쇄살인범을 우연히 찍게 된 사진작가가 그를 추적하면서 펼쳐지는 정통 호러물로 클라이브 바커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브래들리 쿠퍼, 레슬리 빕, 브룩 쉴즈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8월 개봉 예정인 '카핀'은 태국산 공포영화다. 산사람이 관속에 들어가 하룻밤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태국의 기이한 의식인 '카핀의식'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홍콩스타 막문위가 주연을 맡았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자신이 폐암인 것을 알게 된 후 마지막 희망으로 카핀 의식을 치르기 위해 태국행을 택한 홍콩 여자 수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카핀 의식에 참여하는 크리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24일 개봉한 '100피트'는 남편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혔다 가택연금형에 처해진 여주인공이 남편의 유령과 벌이는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엑스멘' 시리즈의 팜케 얀센이 주연을 맡았다.

그밖에 지난 10일 개봉한 스페인 영화 'REC'는 소방대원들을 따라 구조현장에 따라간 TV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아파트 안에 갇혀 자신들이 체험하게 된 공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실시간 체험공포 영화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목! 이 영화 '님은 먼 곳에'

이준익 '음악 영화' 3부작…수애의 변신

'왕의 남자'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이준익 감독 작품으로 '라디오 스타', '즐거운 인생'과 함께 흔히 '음악 영화 3부작'으로 일컬어지는 영화다.

베트남 전쟁에 차출된 남편을 찾기 위해 위문공연단에 들어가 전쟁터로 뛰어든 여주인공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상처 중 하나인 베트남전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순이는 남편 상길이 군대 간 후 시골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유일한 취미인 순이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면회를 갔다 상길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순이는 3대 독자인 상길을 데려오겠다며 베트남에 간다는 시어머니를 만류하고 대신 베트남에 가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메던 순이는 우연히 이태원 삼류밴드를 이끄는 정만을 만나 써니라는 예명으로 전쟁 위문 공연단에 합류해 베트남으로 떠난다.

'눈물의 여왕'으로 불리는 수애가 주인공 순이 역을 맡았으며 이준익 감독의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정진영이 상길 역을 맡았다. 그밖에 남편 역의 엄태웅, 정경호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님은 먼 곳에'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노래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님은 먼 곳에'를 비롯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간다고 하지 마오', '오 대니 보이' '수지큐' 등 당시의 히트곡들이 여러곡 삽입됐다.

7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태국 등에서 촬영했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님은 먼곳에	1971년 베트남.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든 한 여자의 순애보.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소림소녀	중국 소림무술학교에서 수련을 마친 쿵푸 소녀가 라크로스 스포츠와 소림권을 결합시키는 악당들과 대결하는 모험담. 12세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100피트	발목에 전자 발찌를 한 채 100피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된 주인공에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찾아와 위협한다. 15세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가 한 장의 지도를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추격적을 펼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님스 아일랜드	비밀의 섬을 지키려는 모험심 강한 소녀와 그녀를 돕기위해 집을 나서는 작가 이야기.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스페이스 침스 :우주선을 찾아서	거대 우주를 발칵 뒤집어놓을 못 말리는 우주 침팬지 이야기. 전체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엔터	
도라에몽 :진구의 마계대모험	꾸지람만 듣던 진구가 도라에몽의 마법의 주머니의 힘을 빌려 지구를 구한다. 전체 관람가.
CGV(상무·첨단)	
적벽대전 :거대한 전쟁의 시작	천지를 뒤흔든 세기의 전쟁이 시작된다. 유비와 손권은 연합군 결성하는데. 15세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REC	리얼TV다큐 프로그램의 리포터 안젤라와 카메라맨 파블로는 소방대원들을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한다. 18세 이상 관람가.
하미	
핸콕	독특한 성격의 까칠한 히어로 핸콕(윌 스미스)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 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원티드	여자 킬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액션물로 안젤리나 졸리, 모간 프리먼,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을 맡았다.19세 이상 관람가.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크로싱	탈북자를 소재로 한 휴먼 드라마로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백만장자의 첫사랑' 등을 만든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이상 관람가.
엔터	